

홍콩 시위 지지 놓고 전남대 유학생 충돌

대자보·플래카드 잇단 훼손
홍콩·중국 유학생·시위 지지자
수십명 마찰, 경찰 출동 해결

홍콩시위가 날로 거세지면서 최근 광주에서 '홍콩 시위'를 지지하며 내건 플래카드와 대자보가 잇따라 훼손되면서 홍콩 유학생과 중국 유학생 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전남대에서는 '홍콩 시위' 지지 여부를 두고 유학생 간 충돌이 벌어져 경찰까지 출동했다.

17일 광주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전남대 인문대학 쪽문에서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벽보와 플래카드 훼손돼 양측 학생 간 대립이 이어졌다.

지난 15일에는 전남대 인문대 1호관 쪽문(상대쪽문)에서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를 두고 홍콩 유학생, 중국 유학생, 시위 지지자 등 수십명이 충돌했다.



훼손된 홍콩 시위 지지 플래카드.

〈광주의 오월을 기억해주세요. 페이스북 캡처〉

이날 오후 3시30분경 중국 유학생들은 홍콩 시위에 대한 대자보와 플래카드에 대해 항의했다. 이후 SNS로 소식을 접한 홍콩 유학생, 시위 지지자들이 가세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이에 출동한 북부경찰 보안팀이 양측의 입장을 중재해 별다른 상황 없이 종료됐다. 이들의 대치는 1시간 30분간 이어졌다.

이날 갈등은 최근 전남대 인문대 쪽문 인근에 설치된 일명 '레논벽'(Lennon

Wall)에 내걸린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가 누군가에 의해 곧바로 뜯겨나가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남대 인문대 3호관 입구 잔디밭 앞에 설치된 플래카드도 날카로운 도구로 의해 훼손됐다.

레논벽은 1980년대 공산주의에 반발하던 체코 젊은이들이 비틀즈 멤버 존 레논의 반전과 평화를 담은 가사 등을 벽에 쓰면서 유래된 자유 표현 행위다.

홍콩 시위 지지를 위해 설치된 레논벽에

중국 유학생들은 "신경 쓰지마! 알아서 할 거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지지를 해요? 제발 신경겨" 등 비난 메모지를 붙였다. 이에 홍콩 유학생 등은 'Free HongKong 홍콩을 응원합니다'는 등의 반박 메모를 붙여 대응했다. '광복홍콩 시대정신'이라는 인쇄물도 붙여 있었지만 지금은 찢겨져서 없어진 상태다. 일부 중국 유학생들은 대자보 앞에서 큰소리로 항의를 하거나 침 뱉는 시늉을 하고 지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뿐 아니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전국 여러 대학에서도 홍콩 시위를 놓고 양측 학생 간 크고 작은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한 전남대 학생은 "일부 중국인 유학생의 입장도 이해가 가긴 한다"며 "다만 대학에 붙여진 대자보나 현수막을 찢거나 훼손하는 방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색 단풍 물든 푸른길공원 광주 푸른길공원 폐선부지의 단풍이 붉은 비단을 펼쳐 놓은 듯 하다. 17일 오전 광주시 동구 계림동 푸른길공원에 산책 나온 시민들이 낙엽을 밟으며 걷고 있다. /최해배 기자choi@

최근 2년간 무등산 내 음주행위 12건 적발

월출산 14건, 지리산 43건

무등산 등 국립공원내 음주행위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환경부 소속 국립공원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올 10월까지 서석대사 새인봉 등 무등산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적발건수는 12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월출산은 14건, 지리산 43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음주행위는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가장 많은 129건이 적발됐으며, 설악산(4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월별 적발건수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5월(55건), 6월(74건) 음주행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우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계장은 "산행 중 음주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자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며 "국립공원내 취사·흡연행위 금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음주행위 금지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5만 원, 2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별 구체적인 음주금지 장소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청산가리 10배 맹독 파란고리문어 여수서 발견

청산가리 10배의 독성을 지닌 파란고리문어(사진)가 전남 최초로 여수 앞바다에서 포획돼 낚시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여수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8시 30분경 여수시 남면 소유항 동쪽 3.3km 해상에서 선상낚시를 하던 여수선적 낚시대 돌풍호(9.77t) 선장 김모(43)씨는 "낚시에 걸린 문어가 맹독성으로 의심된다"며 여수해경에 신고했다. 여수해경은 김씨로부터 문어 사진을 전달받아 국립수산과학원에 자문을 의뢰했고 맹독성인 파란고리문어가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

파란고리문어는 남태평양 등 따뜻한 바다에 서식하는 아열대어종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제주도, 부산, 경남 거



제 등 남해안 지역에서 꾸준히 발견됐으며 해류를 따라 동해안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전남에서는 첫 발견이다.

이날 여수에서 잡힌 파란고리문어는 길이 7cm, 무게 10g 가량으로 북어 독으로도 알려진 '테트로도톡신'을 함유해 물리면 위험할 수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이번 주 초 춥고 금요일부터 평년기온 회복

이번 주 광주·전남지역은 18일 오후부터 추위가 시작돼 한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유지되다 금요일부터 차차 평년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7일 오후부터 내린 비가 18일 오후 그치면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아져 춥겠다"고 17일 예보했다.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영하 5도 이하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됨에 따라 18일 오후부터 21일까지 춥다가, 22일부터 차

차 평년(최저기온 0~6도·최고기온 11~15)기온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또한 이번엔 유입되는 찬 공기와 서해상 15도 안팎의 해수면이 만나 온도차로 인해 만들어진 구름대로 인해 19일 새벽에 광주·전남 일부지역에는 한차례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도 있겠다.

18일 전남 해안에는 바람이 10~16%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8~12%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수능 부정행위 의심

광주·전남 10건 적발

광주·전남지역에서 2020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부정행위 의심사례가 10건 적발됐다.

17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치러진 수능에서 광주 9건, 전남 1건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광주는 4교시 선택과목 부정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블루투스 이어폰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2건,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 1건, 책상 서랍에 책·노트 보관 2건 등이다. 전남에서는 시험이 끝난 뒤 답안을 작성한 사례 1건이 있었다.

각 교육청은 적발된 사례를 자체 조사한 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통보했고, 평가원은 추후 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최종 확정되면, 전 과목 0점 처리나 2년간 응시자격 제한 등 조치를 내린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 무효처리 위기에 놓인 수험생의 경우 주장이 엇갈리고 상황이 애매한 부분도 있어 무효처리 여부는 심의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예고

20일부터... 호남선 등 감축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호남선 KTX 등 일부 열차편이 감축 운행될 예정이다.

17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20일부터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파업 기간 고속열차 예상 운행률을 평상시 대비 78.5%(KTX 68.9%·SRT 정상 운행) 수준으로 보고 있다.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60%, 화물열차는 31% 수준에서 운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버스 업체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얻어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2019
12.1
~
12.31

무등파크 호텔&리조트

송구영신 패키지 특별프로모션

기업행사 · 세미나 · 대관 · 가족행사 · 돌잔치 · 송년회 · 신년회

01 송구패키지 (100명) -5,997,400원 → 5,000,000원
스탠다드룸 1박 + 연회 뷔페(주류, 음료 포함) + 고급 케이크 + 아이스카빙 + 밴드 연주

02 영신패키지 (200명) 10,861,600원 → 10,000,000원
스탠다드룸 1박 + 연회 뷔페(주류, 음료 포함) + 고급 케이크 + 아이스카빙 + 밴드 연주

최소 20명에서 최대 500명까지 한 번에 진행가능!

MUDEUNG PARK HOTEL & RESORT

예약문의 062-226-0011

오늘의 날씨

| | | | |
|------------|-------|------------|-------|
| 해돋이 | 07:09 | 달ตก | 22:31 |
| 해질 | 17:25 | 달질 | 12:12 |

체감온도 '뚝'
오전까지 비온 후 그치고 추워지겠다.

| | | | | | |
|----|-------|-------|-----|-------|-------|
| 광주 | 비온뒤 갠 | 11/12 | 보성 | 비온뒤 갠 | 11/12 |
| 목포 | 비온뒤 갠 | 11/11 | 순천 | 비온뒤 갠 | 13/13 |
| 여수 | 비온뒤 갠 | 13/13 | 영광 | 비온뒤 갠 | 10/11 |
| 나주 | 비온뒤 갠 | 11/12 | 진도 | 비온뒤 갠 | 11/12 |
| 완도 | 비온뒤 갠 | 13/13 | 전주 | 비온뒤 갠 | 10/11 |
| 구례 | 비온뒤 갠 | 11/11 | 군산 | 비온뒤 갠 | 11/10 |
| 강진 | 비온뒤 갠 | 12/13 | 남원 | 비온뒤 갠 | 10/10 |
| 해남 | 비온뒤 갠 | 12/13 | 흑산도 | 비온뒤 갠 | 12/12 |
| 장성 | 비온뒤 갠 | 11/11 | | | |

◇ 바다 날씨

| | | | | |
|-----------|------|---------|------|---------|
| | 오전 | 오후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안바다 | 서~북서 | 1.5~3.0 | 서~북서 | 1.5~3.0 |
| 남부 연바다 | 서~북서 | 2.0~4.0 | 서~북서 | 2.0~4.0 |
| 남해 연바다 | 서~북서 | 1.0~2.0 | 서~북서 | 1.0~2.0 |
| 서부 연바다(동) | 서~북서 | 1.5~3.5 | 서~북서 | 1.5~3.5 |
| 연바다(서) | 서~북서 | 2.0~4.0 | 북서~북 | 2.0~4.0 |

◇ 생활지수

관심

식중독

낮음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 주간 날씨

| | | | | | | |
|-------|-------|-------|-------|-------|-------|-------|
| 19(화) | 20(수) | 21(목) | 22(금) | 23(토) | 24(일) | 25(월) |
| | | | | | | |
| 5/9 | 2/10 | 2/14 | 5/17 | 8/18 | 9/18 | 9/18 |